"유승준 비자 거부는 위법"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사진) 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는 취지의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 씨가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하면, 한국정부는 유 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3부는 11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면서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 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 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대법원 판결로 유 씨가 바로 입국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총영사관은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검토해야 한다. 대법원은 총영사관이 유 씨에게 비자발급을 하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방탄소년단, 세계에서 가장 수입 많은 유명인 43위"

그룹 방탄소년단(BTS·사진)이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수입이 많은 유명인 43위에 올랐다.

포브스는 10일 '2019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엔터테이너 100명' (The Celebrity 100–The World's Highest–Paid Entertainers 2019) 순위에서 지난해 5천700만 달러를 벌어들인 BTS가 배우 브래들리 쿠퍼와 함께 공동 43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보이밴드와 K팝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순위다.

1위는 1억8천500만 달러를 벌어들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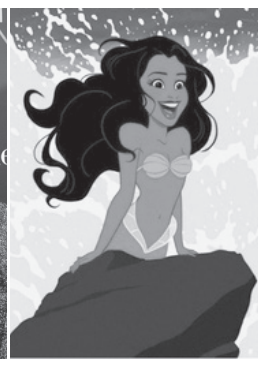
한편 방탄소년단(BTS)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실물 앨범 정상에 올랐다.

최근 미국 닐슨 뮤직이 공개한 '2019년 상반기 리포트' 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지난 4월 발매한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MAP OF THE SOUL: PERSONA)가 '톱 10 피지컬 앨범(Top 10 Physical Albums)' 1위를 차지했다.

닐슨 뮤직의 리포트는 미국에서 올해 1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6개월간 판매된 실물 앨범 및 디지털 다운로드, 오디오 스트리밍 등 음악 관련 수치와 트렌드를 분석한 자료다. 이 중 '톱 10 피지컬 앨범' 은 미국에서 판매된 실물 앨범의 수치를 집계한 것이다. 방탄소년단의 앨범은 이 기간 31만2000장이 팔렸다.

포브스는 "방탄소년단은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 로 2019년 가장 많이 판매된 실물 앨범 랭킹을 이끌고 있다." 며 "이 앨범은 방탄소년단의 세 번째 '빌보드 200' 1위를 기록했으며 비(非)영어 앨범임을 고려했을 때 대단한 성과" 라고 평가했다.

디즈니, '흑인 인어공주' 논란에 일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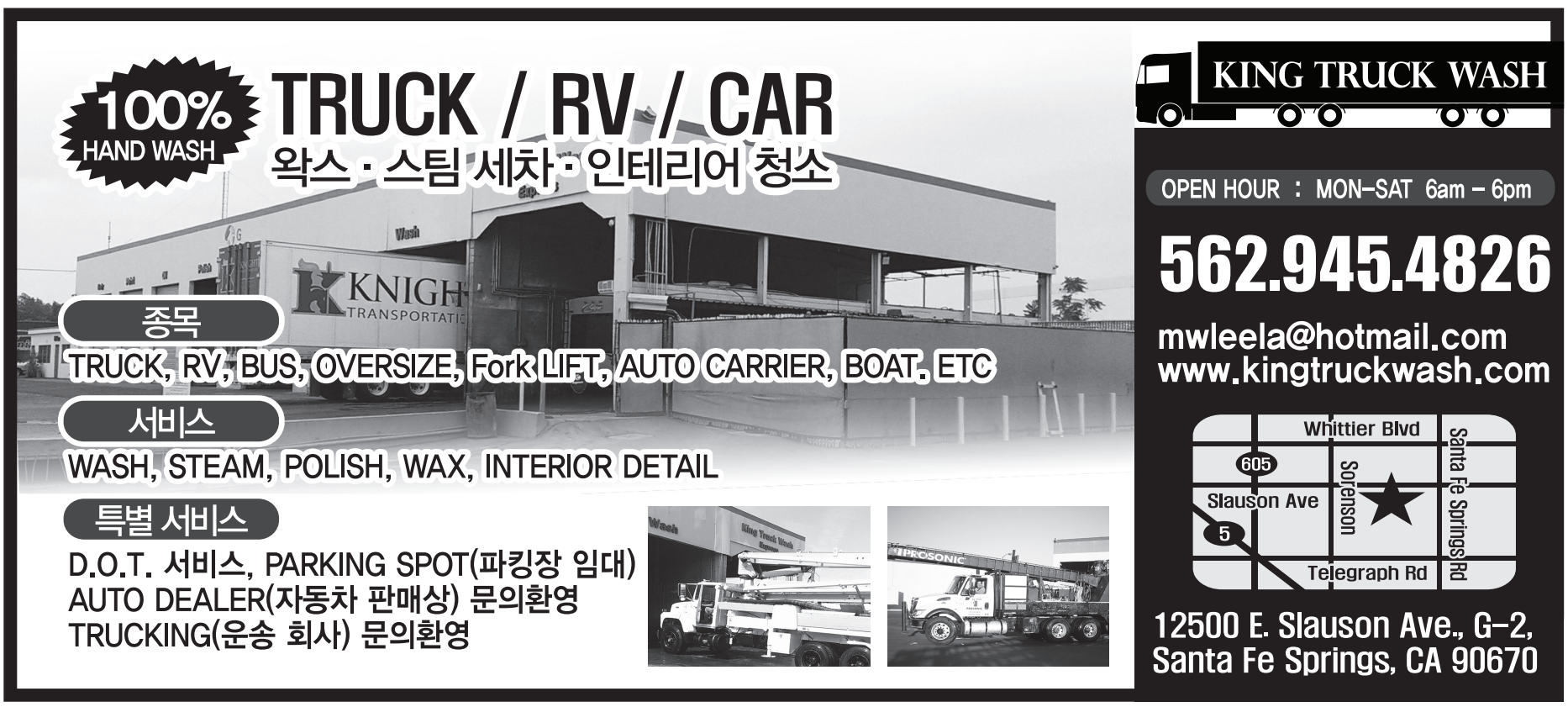
미국 알앤비(R&B) 듀오 자매 클로이&할리의 할리 베일리(Halle Baily 왼쪽 사진)가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어공주' 의 실사판 주인공으로 낙점된 데 대해 누리꾼 사이에서 그의 캐스팅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앞서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젠다이아 콜먼 등이 주인공으로 거론됐지만, 초반부터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베일리가 인어공주인 아리엘 배역을 거머쥐었다.

베일리는 디즈니의 공식 발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꿈은 이루어진다(dream come true)" 라는 글과 함께 까무잡잡한 피부의 인어공주 사진(오른쪽 사진)을 함께 게재해 기쁨을 드러냈다.

그러나 온라인을 중심으로 그의 캐스팅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베일리가 백인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그러자 영화 제작사인 디즈니 측이 캐스팅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에게 일침을 놨다. 디즈니는 인어공주 원작이 덴마크 동화라는 점을 근거로 흑인 주인공에 반대하는 일부 여론을 겨냥해 "덴마크 '사람' 이 흑인일 수 있으니까 덴마크 '인어' 도 흑인일 수 있다." 며 "흑인인 덴마크 사람과 인어가 '유전적으로' 빨간 머리를 갖는 것도 가능하다." 고 밝혔다.

검은 머리를 가진 흑인 배우 할리 베일리(19)가 실사영화 주인공으로 낙점된 것은 원작 애니메이션의 '흰 피부에 빨간 머리' 인어공주 아리엘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인어공주' 를 총괄하는 롭 마샬 감독은 베일리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목소리는 물론 정신, 열정, 순수함, 젊음 등을 모두 소유한 드문 인재" 라며 캐스팅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